'깨끗한 세상만들기' 운동 펼치는 국민권익위 대학생 청렴홍보단 전남대생들

"청백리 찾기 4개월… 우리 사회 아직 희망 있어요"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청렴(淸廉)하다고 불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청렴하더라도 주위 시선 탓에 드러내놓고 '나는 청렴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각종 비리와 청탁이 판치는 우리 사회에서 청렴한 인물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숨어있는 청렴한 공직자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대학생들이 있다. 바로 전남대학교 깨순이들인 나수빈(21·임학과 3년), 김현정(21·행정학과 3년), 김영미(21·임학과 3년), 오은지(21·생명공학과 3년)씨.

'깨끗하고 순수한 이 세상 만들기'의 줄인 말인 깨순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대학생 청렴홍보단' 호남권 단원들로 전남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이들은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선정돼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청렴이요? 다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봉사에 앞장서거나 타인을 배려하는 것도 청렴에 속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들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청렴한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을 찾아다니며 '청백리상'을 선정, 상패를 전달하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청렴한 인물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대학생 깨순이들이 지난 8월 이달의 '청백리상'으로 성유석(가운데) 북구 주민생활지원 계장을 선정했다. 사진 왼쪽부터 나수빈, 김현정, 김영미, 오은지씨.

매달 한 차례 선정하는 '청백리상'은 릴레이식으로 추천을 받으며 지난 7월 문병진 광주 수피아여고 교사 이후 모두 4명에게 전달했다. 또 공무원과 대학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를 받기도 하며 외국인이나 공무원, 학생과 시민단체 회원들을 만나 '청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인터뷰를 하기도 한다.

지난 8월에는 부산대학교를 방문해 지역감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광주와 부산에 대한 이미지 조사 등도 하면서 영호남 사이에 있는 벽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

오은지씨는 "영·호남지역 대학생에게서는 지역감정을 크게 느낄 수가 없었다. 단지 기존에 수십년간 지배해 온 지역감정이라는 망령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존재하고 있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았다"며 "앞으로 한국사회에 축을 담당할 대학생들이기에 충분히 지역감정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록 4개월에 불과한 활동이지만 '청렴'을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 심기 위한 이들의 활동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 활약 중이다. 깨순이들의 모든 활동은 인터넷 블로그(http : //cnuclean.com)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김현정씨는 "청렴하다는 건 특별한 것이 아닌 세상이 되야 하는데 본인이 청렴하더라도 남의 시선 탓에 주위를 의식하게 되는 게 문제"라면서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나 하나로부터' 라고 고친다면 우리나라는 청렴한 나라로 한발 성큼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광주 소방본부 항공구조대 박창순 대장

5천시간 무사고 비행 달성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소방항공구조대 박창순 대장이 지난 2일 5천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했다. 지난 1981년 군 조종사로 임용돼 헬기조종을 시작한 지 29년 만이다.

그는 그동안 군, 경찰 등에서 UH-1H, A109M, BELL206 등 다양한 기종의 헬기 운항 경력을 쌓았으며, 지난 1997년 5월1일 창설된 광주소방항공구조대로 옮겨 지금까지 13년 동안 무사고 비행기록을 이어오고 있다.

박 대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30여 년 동안 5천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교육 및 안전비행훈련, 완벽한 항공기 정비, 구조대원 모두의 안전의식이 만들어 낸 결과"라며 "시민들에게 앞으로도 신속한 기동력으로 안전한 소방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광주소방항공구조대는 창설 후 현재까지 1천 270회 출동해 인명구조 및 환자이송 200회, 산불진화 및 홍보 380회, 시정지원 등 기타 690회의 출동으로 한발 앞선 현장대응으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왔다.

또 광주소방항공구조대는 앞으로 풍수해 대비 인명구조, 생명나누미 활동 등 활동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교육계 원로들, 교육발전 이끈다

김영수 이사 등 '광주교육발전연구소' 창립

"올바른 교육 개혁은 일선 학교 행정이 변화를 가져올 때 입니다"

30년 이상을 교육계에 몸담았던 교육계 원로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 교육현실을 적나라하게 진단하는 '교육발전 연구소'를 창립,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고구려 대학 이사를 맡고 있는 김영수〈사진〉씨를 주축으로 평생을 일선 교육현장에서 몸담았던 교육계 원로 20여 명이 '광주교육발전연구소'를 창립, 6일 오후 3시 광주 상무지구 코스몰빌딩 4층에서 개소식을 갖는다.

이날 개소식에는 광주동부교육청 관리국장으로 끝으로 퇴임한 김종범(63)씨를 비롯해 김영남(64·월곡초 교장 퇴임)씨 등 전직 교육계 원로 20여 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고구려대학 김영수 이사를 '광주교육발전연구소' 이사장으로 추대할 예정이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이원희-김미현 부부 아들 출산

유도 올림픽금메달리스트 이원희(28·한국마사회)와 한국 여자골프의 '슈퍼 땅콩' 김미현(32·KTF) 부부가 첫 아들을 낳았다.

지난해 12월 결혼한 김미현은 4일(한국시간)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2.7㎏의 건강한 남자 아이를 출산했다고 김미현 아버지인 김정길 씨가 전했다.

산모와 아이는 모두 건강하며 김미현은 당분간 집이 있는 올랜도에서 머무를 예정이다.

지난 6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웨그먼스 LPGA를 끝으로 일찌감치 시즌을 접었던 김미현은 내년 초 복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내방

▲장호직(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씨 ▲정정래(〃 〃 사무처장)씨 ▲문경주(〃 〃 제도개선실장)씨

"관리 잘하면 국화 분재 5년까지 꽃 피워요"

광주정부청사서 전시회 '국화박사' 윤재섭씨

개청 1주년을 앞둔 광주시 북구 오룡동 광주정부청사가 온통 진한 국화향으로 뒤덮였다.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건물 밖 곳곳에 놓인 800여점의 국화 작품 향기에 취하고 청사에 들어서면 국화 분재에 탄성을 지른다.

국화축제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함평 국향대전을 다녀온 사람들도 정부청사 1층에 전시된 국화 분재에 감탄사를 절로 쏟아내고 있다.

국화 전시회는 청사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광주청사관리소가 개청 1주년을 기념해 마련 한 것이다. 국향대전을 능가하는 전시회가 열리기까지는 '국화박사'로 불리는 광주청사관리소 조경담당인 윤재섭씨(51)가 있어서 가능했다.

특히 130여점에 달하는 국화 분재는 윤씨의 노하우가 그대로 작품에 배어 있다. 전시회를 본 사람들은 다년생 풀인 국화가 분재로 가능하다는데 놀라고 각양각색의 국화꽃이 나무나 돌과 조화를 이뤄 멋진 작품으로 탄생한데 또 한번 놀란다.

전시된 분재의 대다수는 1년생이지만 5개 작품은 2년생 국화꽃으로 만들었다. 국화를 분재로 만들어 꽃을 피우기도 쉽지 않지만 분재에서 2년간 꽃을 피우기는 더 어렵다.

윤씨는 "묘목에서 꽃까지 한해에 볼 수 있는 것이 국화 분재의 가장 큰 매력"이라며 "관리만 잘하면 국화 분재에서 5년까지는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노하우를 갖기까지는 윤씨의 10년 국화사랑이 있었다. 10년 전 광주세관에 근무할때 처음 국화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6년전부터는 함평농업기술센터에서 본격적으로 국화 재배 및 관리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배운 기술을 활용해 만든 작품을 함평 국향대전에 출품해 2007년과 2008년 잇따라 장려상과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향대전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남근모양의 '다산' 작품이 윤씨의 우수상 수상작이다.

윤씨는 "이번 전시회를 위해 민병대 소장님 등 청사 관리소 직원 모두가 지난해 10월 꽃꽂이부터 시작해 1년간 틈틈히 국화를 가꿔왔다"며 "청사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반응이 좋아 연례 행사로 국화 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학교 포기한 채 교통사고 어머니 간병

정반표 광주시담당관 아들 현진씨 시장 표창

교통사고로 시각장애를 겪게 된 어머니를 15년째 간병하고 있는 정현진(27·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사진 오른쪽)씨가 5일 장애복지유공자로 광주시장 표창을 받았다. 그는 간병인 없이는 거동을 할 수 없는 어머니를 위해 다니던 중학교를 중퇴했고,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한시도 어머니 곁을 떠난 적이 없다.

정씨에게 불행이 닥친 것은 지난 1995년 12월. 담양에 사는 친척집을 방문하고 귀가하는 도중 맞은편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공무원인 아버지 정반표(57·광주시 녹색성장담당관)씨와 어머니 허윤희(54)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아버지는 왼쪽다리 대퇴부와 팔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 인공관절에 의지하는 신체장애인(지체 5급)이 됐고, 어머니는 시신경이 마비되고 뇌손상까지 입어 시각장애인이 된 것.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정씨는 공부는 제쳐놓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입원한 두 병원을 오가며 간병을 했지만, 어머니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학교를 그만두고 24시간 병실 간이침대에서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

정씨는 "지금도 사고 당시 피범벅이 된 부모님의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난다"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하느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정씨의 아버지는 지난 7월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둘째 아들 현진씨에게 "아들아!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김원태(전 동아여중 교장)·남순자씨 장남 범진(송원 모터스 대표)군 임종보·박연옥씨 장녀 송이양=7일(토) 낮 12시 에볼루션 웨딩홀 3층.

▲함정자씨 아들 한치민군 선정식(반도여행사 대표)·장복희씨 딸 혜림양=7일(토) 오후 1시 무등파크호텔 4층.

▲김대웅(전 광주고검 검사장)·안 숙씨 장남 강민군 박홍철·김명희씨 차녀 희선양=7일(토) 오후 5시 서울 밀알학교 2층 도산홀.

▲정종일(전 전남여고 교사)씨 차남 우철(곡성군청)군 신정철씨 차녀 미지(곡성군청)양=7일(토) 오전 11시20분 양동 금호생명 3층(노블레스홀)

▲김현백·허분순씨 차남 상배군 이옥주(남구 총무과장)·정원례씨 장녀 지현양=7일(토) 낮 12시30분 프라도호텔 2층(다이아몬드홀)

▲이범수·손점숙씨 장남 승준(남도일보 사진부 차장)군 송기원·박외순씨 장녀 난희양=7일(토) 낮 12시 웨딩의전당 금호 30층 아시아나홀.

▲김정옥(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동구회장)·이일순씨 장남 성환군 박인규·최순득씨 차녀 영은양=8일(일) 낮 12시30분 광주신양파크호텔 1층(그랜드볼룸)

▲나승수·이창엽씨 장남 상현(대왕산업 대표)군 김양길(전 한국농어촌공사)·최향옥씨 차녀 경선양=8일(일) 낮 12시 무등파크호텔 4층(컨벤션홀)

▲권영순씨 차남 방성진(봉선동 자연과 바다)군 송기동·이정자씨 장녀 지현(화순 전남대병원 간호사)양=8일(일) 낮 12시40분 웨딩의 전당 금호 30층 아도니스홀.

동창·동문회

▲북성중 제 6회 동창회(회장 이창균) 월례회=6일(금) 오후 6시 미송식당. 062-223-6322.

▲육군 제2하사관 113기(회장 박해명) 정기총회=7일(토) 오후 7시 자미연. 062-511-5292.

▲구례중 18회 동창회(회장 박노창) 정기총회=7일(토) 낮 12시 지리산학생수련관. 011-9617-3330.

▲제11회 담양남초등학교 동문회(회장 김웅국) 정기총회·한마음대회=7일(토) 오후 2시 모교 교정.

▲구림초등학교 제49회 동창회(회장 신원장) 속리산야유회=7일(토) 오전 7시30분 광주시청 앞 출발. 010-8200-8282.

▲대촌중학교 제9회 동창회(회장 이재곤) 10회 정기총회=8일(일) 오전 10시 모교 운동장. 019-476-3354.

▲북성중 제 9회 동창회(회장 김영석) 월례회=9일(월) 오후 6시 해태식당. 062-525-7393.

▲순천고 칠광회(회장 김문기) 모임=9일(월) 오후 6시 학동 전복사랑. 062-232-3339.

▲광주인성고 3회(회장 장선현) 졸업 30주년 기념행사(추진위원장 오병준)=14일(토) 오후 6시 광주 상무지구 예술의 전당. 011-609-0198.

향우회

▲재광해남군 향우 가족 체육대회(회장 유경식)=8일(일) 오전 9시 광주 월드컵보조경기장. 016-833-7018.

▲광산구행정동우회(회장 조동희)추계총회=9일(월) 오전 8시30분 광산구 보건소 앞 집결. 경남 합천해인사. 011-628-7120.

종친회

▲충주지씨 광주·전남 청장년회(회장 지형원)=7일(토) 오후 4시 광주시 서구 금호동 병천사. 011-618-2389.

▲한국범최씨 대종연합회(회장 최기후) 월례회=11일(수) 광주시 동구 금남로5가 진도횟집. 062-236-3220.

▲나주임씨 나주청장년회 정기월례회(회장 임영택)=12일(목) 오후 7시 영산포 우체국앞 다복가든. 010-2613-8076.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첨단산약초모임 자선바자회=7일(토) 첨단복지관 앞. 011-604-3015.

▲발관리 전문 상담=무겁고 피곤한 발, 각질, 무좀, 갈라진 발, 붓는 발 등. 광주시 북구 풍향동 백림약국 탑정형외과 옆 베네슈. 062-266-6657.

부음

▲김갑수(전 광주일보 교열부 차장)씨 별세 용환·영란·현옥·유정씨 부친상=발인 7일(토) 쌍촌동 한국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380-3042.

▲강중원씨 별세 동수·상희씨 부친상=발인 7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박종규씨 별세 광준·광용(기아자동차 과장)·순덕·점자·옥순(로케트 전기)·미정씨 부친상=발인 7일(토)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박송자씨 별세 김재학·재진·승임씨 모친상=발인 7일(토)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이정례씨 별세 김용훈·봉석·경조·경철씨 모친상=발인 6일(금)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최준광씨 별세 명연·종연·숙희씨 부친상=발인 6일(금)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강대창씨 별세 형복·이원·구원·충원·환원·제원씨 부친상=발인 6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